국가보훈처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www.vnet.go.kr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1666-9279 군인 친구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취·창업상담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식 서비스 제공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사회적응 교육,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 교육,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교육
자격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상담
온·오프라인 성공 제대군인 멘토 실전 경험 전수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9월호 Vol.187

든든한 보훈 국가보훈처

다시 웃는 제대군인

2021. 9월호
Vol.187

한재동
예비역 육군 소령

QR코드를 통해
<다시 웃는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eme Essay

여행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토록 답답한 일인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하지만, 곧 자유롭게 떠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여행하듯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역시 당연하게 찾아오지만, 지나면 다시 누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66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시간여행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훌륭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다시 돌아올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해!

<어바웃 타임> 中 99

출처: 영화 <어바웃 타임> 스틸 이미지

Cover story
(재)한국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재동 팀장.
그는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권
187호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
황기철
발행처
국가보훈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2, 5728~9)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www.kyungsungmedia.com

www.facebook.com/mpvakorea
twitter.com/hun2da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log.naver.com/mpvalove
mpva.tistory.com
www.instagram.com/bohun_story

<다시 웃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SEPTEMBER
2021
vol.187

Begin Again
새로운 시작

06 테마 스토리
'살아보는 여행'을 디자인하다
브라이언 체스키

08 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의 여행,
군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가다
-예비역 육군 소령 한재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운영팀장

12 직업의 세계
미래 일자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찾아라!

14 희망드림 상담소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어떻게?

16 잡학사전
해외일자리 지원사업

Climactic Moment
절정의 순간

18 제군 어벤져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예비역 해군 대위 박준규
민행24 대표 행정사

22 내일의 터전
직원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걸어온 길
-예비역 육군 대위 여희송
대구 굿모닝병원 경영기획부장

26 제대로 알림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브이넷(Vnet) 활용

28 성공의 법칙
뉴노멀 시대의 '뜨는' 직업군

Happy Ending
행복한 결말

30 스타트업
사람과 차(tea)를 연결하다
-티링크

32 그곳에 가다
지리산에 기대고
섬진강을 바라보고
-전남 구례

36 라떼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긴일

38 맞았군! 틀렸군!
이런 보직도 있어?
특수보직에 대하여

40 NEWS DESK
이달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 소식

42 어바웃 타임
생활정보와 독자 퀴즈

'살아보는 여행'을 디.자.인.하다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

여행자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airbnb).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는 전형적인 기업가들과는 사뭇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하키선수와 디자이너를 거쳐 '16인치 팔뚝의 보디빌더'로도 활약했던 그는 어떻게 유명 호텔체인들을 제치고 세계 숙박시장을 재편할 수 있었을까?

글 윤진아 / 일러스트 비올라 /
참고 <에어비앤비 스토리>

에어비앤비의 시작점

에어비앤비의 시작점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직장이 없던 20대 중반의 체스키는 부족한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차였다. 때마침 그가 살던 지역에 산업디자인 콘퍼런스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호텔 방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체스키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일부를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들은 에어베드(AirBed, 공기침대) 3개를 구입하고 호텔을 예약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에게 자신들의 방을 빌려주고 아침을 제공했다. 이용객들은 호텔보다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하고 현지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호평했고, 체스키는 일주일 만에 1,000달러의 돈을 벌어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었다. 빈방 공유가 생각보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임을 직감한 체스키는 친구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은 자신들이 빌려준 공기침대와 아침식사에서 따온 에어베드&브렉퍼스트(AirBed&Breakfast), 줄여서 '에어비앤비'라고 지었다.

주저앉는 대신 시리얼이라도 팔아보자!

에어비앤비가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다. 빈방 단기임대 아이디어만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고, 누구도 에어비앤비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빚이 불어나자 '오바마 오', '캡틴 맥케인'이라는 익살스런 이름의 시리얼을 디자인해 판매했고, 이 일이 이슈가 되어 벤처투자사 와이콤비네이터로부터 첫 번째 투자를 받았다. 체스키의 노력을 눈여겨본 폴 그레이엄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체스키와 그의 친구들은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사람들이어서 쉽게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대 중반의 청년 세 명이 시작한 이 기업은 10년 만에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용자, 20개의 지사, 26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로 거듭났다. 비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실함, 그리고 '사용자 중심'이라는 기업철학이었다. '쉽고 멋지게'를 추구하는 에어비앤비의 콘셉트는 세련된 사용자환경(UI)을 제공하고 마우스를 세 번만 누르면 예약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웹사이트에 잘 드러난다.

> 여행객들은 더 이상 타임스퀘어를 동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일.
> - 브라이언 체스키

세계 숙박시장 판 뒤집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여행 판도가 영원히 뒤바뀔 것"이라며 "여행객들은 더 이상 타임스퀘어를 동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장거리 이동을 막았고, 여행과 호텔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모든 이동을 막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해외로 갈 수 없는 대신 자국 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얼어붙은 지금, 에어비앤비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0년 12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2021년 8월 기준 872억 달러(약 1조115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1위 호텔 체인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2위 힐튼월드와이드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큰 액수다. 전 세계가 에어비앤비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행 속에 삶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간다'는 것이 여행이라면 '산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이라고 말한다. 현지에 장이 서는 날에는 마켓에 들르고, 붐비는 관광지나 쇼핑몰 대신 숙소 근처의 놀이터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식이다.

주어진 여건에 맞는 소소한 행복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특별하게 즐기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올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한적한 고택에 머물며 여행 같은 일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현지인의 삶이 켜켜이 쌓인 집과 마을을 둘러보다 다리가 아프면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바람 소리도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금은 낯선 일상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면, 2021년 추석은 그 어느 해 보다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여행,
군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가다

예비역 육군 소령 한재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운영팀장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사는 동안 방향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최종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재동 팀장에게 2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은 군 생활을 경험하는 여행이었다.
이제 막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팀장이라는 새로운 여행길에 오른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면 분명 최종 목적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영상** 고인순

QR코드를 스캔하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생생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Talk

Q.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A. (재)한국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광주와 전라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한국어와 정보화교육, 사업장 내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통역, 기타 의료 및 문화행사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Q.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올해 5월 9일 입사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컴퓨터교육, 사업장과 일상생활의 고충상담, 의료지원 및 문화행사 등을 계획하여 진행하고요. 그 밖에도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합니다.

Q. 언제, 어느 부대에 입대하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제대하신건가요?

A. 군생활 동안 인사관련 업무 6년(7군단, 11공수특전여단), 교육관련 업무 3년(육군학생군사학교), 미8군과 연락업무 5년(한국군지원단), 이라크에 파병해서 새마을운동 총괄사업장교(이라크평화재건사단) 등 현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운영팀장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각종 행사, 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조 및 MOU체결 그리고 외국인과의 협조 및 연락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용했을 때 가장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11공수특전여단 인사참모시절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와 업무협조를 한 경험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역 후 직접 센터에 찾아가 취업지원 및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교육 GTQ 2급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죠. 취업을 준비하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Q. 향후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쉽고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유창한 영어실력을 위해 노력하려고요. 매주 책 1권 읽기, 운동 등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또 열심히 살고 싶어요.

Q.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제대군인 후배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회사라는 조직의 CEO가 원하는 인재상은 명확해요.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능력, CEO의 의도와 지침을 알고 추진하는 능력, 소통 능력, 회사를 위한 개선·발전사항을 고민하는 사람, 지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죠. 여러분을 기다리는 회사는 분명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급해 마시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올려두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까지 앞둔 상황이다.
이전에는 환갑만 되어도 장수로 여기고,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지만 지금같은 백세시대에 환갑잔치는 민망한 상황만이 연출될 뿐.
고령화된 인구, 늘어난 평균 수명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점점 그 역할이 커지고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
글 편집실

미래 일자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찾아라!

Future Job

고령화 사회에 따른 미래 유망 직업 : 보건의료 분야

Future

의료일러스트레이터

의료일러스트레이터는 의료 관련 영상 또는 그림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다. 의학정보를 그림, 3D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직업인 것이다. 일러스트 실력과 의학적 지식을 접목한 분야로 이런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의료일러스트레이터는 미술 전공자들이 의대 해부학 실습에 참여해 의학지식을 쌓아 활동하고 있다.

학습장애간호사

학습장애간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학습장애간호사에게 소통능력, 환자와 보호자와의 긍정적인 신뢰관계, 환자를 생각하는 배려,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강인함은 필수다. 학습장애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 이제 백세시대다. 문제는 건강하게 백세를 사는 사람보다 만성 질병을 몸에 지닌 채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단순히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도 세분화되고 있다.

New Job

제약의사

제약의사는 회사에서 개발된 새로운 약품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를 의학연구자와 의료인들에게 전달하고, 연구자와 의료인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과 장비의 수요를 파악해서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류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약과 의료기기가 개발되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활용방법을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제약의사인 것이다.

세포검사기사

세포검사기사는 확립된 검사 기준과 조건에 따라 암, 호르몬 그리고 다른 병리적 조건들에 대한 이상 증거를 감지하기 위해 세포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임상병리학 학위를 취득한 후 세포학검사 분야로 특화된 교육기관에서 세포검사기사로서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Solve the Problem

'희망드림 상담소'는 전역(예정)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고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어떻게?

2019년 3월 제조업체에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쯤 될 무렵 일을 하다가 삼각연골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나 수술을 하고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손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재발생했습니다. 손목에 통증을 많이 느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적합한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음에는 수술해도 완치가 어려워 수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수술할 경우 한 번 받은 산재신청을 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건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희망드림 상담소에서 솔루션 받기를 원하시는 제대군인은 vnet5729@gmail.com으로 고민거리를 보내주세요.

솔루션 제공 / 제본승 변호사(법무법인 아크로)

산재보험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인 '요양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선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더하여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료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산재보험을 받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 발견됐거나 그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해 발생한 다른 사고가 있었거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 등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 45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요양'이라 하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써,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이미 수술을 받은 손목 부위에 다시 부상이 재발한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적극적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을 내었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소위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사직)한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얻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현 건강상황에 따른 직무전환(부서이동) 요청에 대한 고용주(회사)의 거부의사를 증명하는 자료(의견서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인데,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 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복수급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금액 차이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 일(日) 급여의 70%(1일 최저 69,760원 ~ 최고 226,191원, 2021년 기준)이고,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 일(日) 급여의 60%(1일 최저 60,120원 ~ 최고 66,000원, 2021년 기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일자리 지원사업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해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교육 내용과 지원금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

지원대상/인정기준

지원대상	인정기준
• 연령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6분위 이하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자	• 취업비자 취득 • 연봉 1,600만 원 이상 • 근로계약 1년 이상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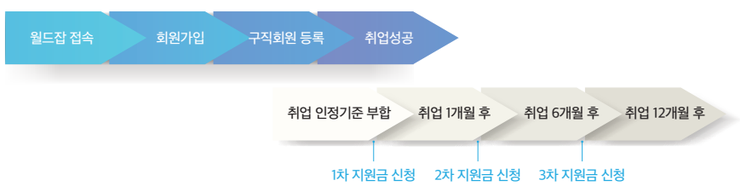
• 지원금 우대국가(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 취업자 : 최대 600만 원

구분	취업 1개월 후	취업 6개월 후	취업 12개월 후
금액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선진국 취업자 : 최대 400만 원

구분	취업 1개월 후	취업 6개월 후	취업 12개월 후
금액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신청절차



K-Move 스쿨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 취업으로 연계

지원개요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원내용)
  - 단기(200~600시간 미만) 1인당 최대 580만 원 한도 지원
  - 장기(600시간 이상) 최대 800만 원 한도 지원
  - 트랙 II (1,0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온라인신청(www.worldjob.or.kr)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등에서 연수생 직접 선발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77-9997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해외취업상담사 ☎ 02-3480-6883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예비역 해군 대위 박준규
민행24 대표 행정사

2013년 전역한 박준규 행정사. 그는 행정사 그룹 '민행24'를 이끌면서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보에 나서고 있다. 행정 업무에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글 김주희 / 사진 정우철

차별화된 경쟁력, 성장 동력이 되다

행정기관의 업무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이를 대응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기관 인·허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또한 마찬가지. 행정사 그룹 '민행24'는 행정 민원 업무 대행부터 비자 및 영사업무, 행정심판 및 권리 구제와 각종 인허가 등 폭넓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심에 박준규 대표행정사가 자리한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장교로 복무한 그는 전역 이듬해 JK행정사무소를 개소했다. 4년 뒤 민행24를 설립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확보해나갔다.

"행정사 한 명이 업무를 A부터 Z까지 담당하던 시스템을 팀제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업무 단계를 나눠서 두세 명이 함께하다 보니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정확도와 신속도가 높아졌지요. 또한 민행24만의 색깔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무려 3,800여 개에 이르는데, 전문성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특화시켰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IT기업 고객을 위한 인·허가 업무입니다."

민행24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인·허가를 국내 최초로 전문화시키며 독자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0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에서 업계 1위의 점유율을 획득했다. 박준규 행정사는 행정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을 손꼽는다.

"법은 법률에 근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행정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상황을 잘 읽고 그에 발맞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행정사 문턱이 낮은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영역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군 생활 경험은 사회생활의 밑거름

대부분의 제대군인이 그렇듯, 박준규 행정사 역시 전역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평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전역을 선택했고, 진로를 고민하다 행정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돌아보건대, 군 생활은 행정사로 자리잡는 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해군본부에서 전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했어요. 사전 분석을 통한 비용 산정을 했는데, 도입 비용, 운영·유지비용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방산 업체와 교류하거나 콘퍼런스에 참가한 경력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역 6개월 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면서 기업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 인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정하영 팀장의 도움으로 제대군인 직원을 채용하는 등 꾸준히 교류 중이다. 박준규 행정사는 제대군인 출신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낸다. 군인들은 대체로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기에 빠르게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뛰어나다. 또한 조직체계가 명확한 군의 특성상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하고 협업이 잘 이뤄진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한 비상

성장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민행24는 보폭을 더욱 넓히는 중이다. 대전 본점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에 분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정부 지원사업 센터, 출입국 관련, 의료기기 인증, 토지보상, 일자리 지원, 기업지원 업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땐 서로 연계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장기적으로 민행24가 업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행정 업무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행정사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행정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국민들에게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사 인식 개선과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군인들은 대체로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기에 빠르게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는데 뛰어나다.

변화와 혁신의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는 그 누구보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경직된 취업 환경 속에서 자신 또한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용기를 잃지 말라며 애정 어린 당부를 전했다.

"사회적 눈높이를 낮추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조건 좋은 곳, 높은 곳을 지향하지 말고 낮은 곳에 가서 헤더 역할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헤더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도 의미가 꽤 크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계획을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실현하길 바랍니다!"

직원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걸어온 길

예비역 육군 대위 여희송
대구 굿모닝병원 경영기획부장

2002년 전역 후 굿모닝 병원 개원 멤버로 시작해 19년째 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여희송 부장. 직원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온 시간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생각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희송 부장에게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다.

글 한율 / 사진 정우철

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다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은 전국을 통틀어 네 곳이 있다. 1994년 개원하여 2003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으로 이전해 확장 개원한 굿모닝병원이 그 중 한 곳이다. 굿모닝병원은 2008년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에 참가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2년 전역 후 바로 그 해 병원 개원 멤버로 입사한 여희송 부장.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라는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숱했지만, 제대군인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3사단에 근무했었는데 전역을 앞두고 사단 참모장님이 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님에게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병원 확장 계획을 갖고 있던 병원장님이 인연이 있던 3사단 참모장님에게 전역하는 장교 중 대구·경북 출신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겁니다. 병원장님이 군의관 출신으로 의무중대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대군인에 대한 신뢰가 각별하십니다. 현재 굿모닝병원에는 장교 또는 부사관 출신이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희송 부장이 총괄하는 경영기획부는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경영 전략과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서다. 특히 행정 부서부터 혈관조영촬영실 등 특수한 기능을 하는 부서까지 저마다의 고유성과 특성을 파악하여 병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아우르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병원은 수평적 조직이면서 수많은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 병원장님이 군의관 출신으로 의무중대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대군인에 대한 신뢰가 각별하십니다. 현재 굿모닝병원에는 장교 또는 부사관 출신이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중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병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인재 발굴과 육성이 중요한 시대

제아무리 시스템과 업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병원도 인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 만큼 최고의 전문성은 물론 사명감과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여희송 부장의 고민이 깊다. 인사(人事) 관련 업무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 여희송 부장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추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직무 개선과 보상 정책을 결정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신설됐는데 병동지원인력의 구인이 늦어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추천 받아 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희송 부장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추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조직과 인력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솔선수범하는 자세, 원만한 대인관계, 성실성과 책임감을 제대군인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이러한 자세가 필수 덕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대와 달리 기업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존속과 성장을 최대 가치로 여깁니다. 사회환원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이지요. 하지만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 경영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는 듯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생각에 기반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식의 사고보다는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상의 병원으로 나아가다

굿모닝병원은 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2022년 1월 종합병원으로 승격 및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전문병원 사업 참여에 필요한 병원 기능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외래 및 입원 환자, 보호자들의 편의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 공간 일부를 활용해 지하 2층, 지상 7층, 2,000평 규모의 건물 신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굿모닝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브이넷(Vnet) 활용

국가보훈처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대군인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제대군인에게 신속한 취업 또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브이넷을 통한 취·창업
온라인 서비스로 민원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

2

회원가입/로그인

- **(자격조건)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예정자 포함)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회원가입 시 이력서 등록 및 전직지원 신청 등록 필히 실시 → 성공 취업의 Key

3

민원행정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교육비·전직지원금 신청 안내**
- **기업 구인신청·구직자 구직등록 신청 안내**
- **보훈관서 제대군인 지원(등록)·제대군인증 발급 안내**
- **사이버교육·보훈특별고용·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 발급 등**

4

알림판

- **(공지사항)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사업 총괄 공지**
- **(알려드려요!) 새로운 또는 변경된 지원제도 안내**
- **(센터소식) 정기간행물 '다시 웃는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집, 홍보동영상 등**

5

지원정보

- **(자격조건) 입사지원서 작성·면접 요령 취업가이드, 구직행사 안내 등**
- **(창업정보) 창업칼럼, 창업뉴스, 업종리뷰 등**
- **(해외정보) 해외일자리 채용정보, 해외 취업·창업 뉴스 등**
- **(교육정보) 직업훈련·위탁교육정보, 사이버교육 등**

6

지역별 센터

- **(공지사항) 지역 센터별 구인구직행사, 워크숍, 위탁교육 안내 등 공지**
- **(채용정보) 군관련직, 제대군인 우대·선호 및 적합 직종 위주 채용정보**

  *직종·일자리·근무지별 상세 검색

7

뉴노멀 시대의 '뜨는' 직업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가 낳은 팬데믹은 직업의 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직업군이 세상의 환영을 받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글 강진우(문화칼럼니스트)

NEW NORMAL JOB

현재의 흐름은 단연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한다면 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혁신이 일을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이 크게 변화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문명의 발전'이다. 쉽게 말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 직업군도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증기기관을 필두로 기계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자 농업인들은 공장 노동자로 직업을 바꿨고, 인터넷이 고도화되자 IT 개발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데이터·로봇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직업군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인간-로봇 협력 관리자, XR(확장현실) 기획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코딩(Coding)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전통적 직업군도 관심의 대상이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4가지 직업군'을 선정했다. 먼저 인간 특유의 창조적인 영감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 예컨대 영화감독·작가·도예가 등은 로봇 시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운동선수·모험가·아이돌 가수 등 자동화가 필요없는 직업군도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로봇 및 인공지능 개발자·로봇 정비기술자 등 자동화 개발·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직업군, 의사·간호사·배우 등 로봇이 대신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직업군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팬데믹으로 각광받는 새로운 직업군

그런데 최근 '기술 혁신에 의한 직업군 변화'라는 공식에 큰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이 그 주인공이다. 모든 분야가 '언택트(Untact)'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부상한 직업군도 상당히 많다.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선정했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입된 재택근무의 높은 효용성이 점차 증명됨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재택근무 관리자가 생겨났다. 코로나19로 망가진 심신을 온·오프라인에 걸쳐 관리해 주는 피트니스 카운슬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 사물인터넷 기기를 효율적으로 구성·관리하는 스마트홈 관리자 등 지금껏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직업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한편 바이러스의 성장과 발전,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는 바이러스 전문가, 전염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역학 조사원,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신약 개발 전문가 등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군도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미래 전망이 밝은 직업군을 예측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 이럴수록 시대의 커다란 트렌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흐름은 단연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한다면 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차(tea)를 연결하다

tealink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러라도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기 위해 노력 한다. 마실 거리에서도 예외는 없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보다 기왕이면 몸에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 차류 전문회사 티링크는, 사람과 차(tea)를 연결하며 현대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한다.

정리 편집실 / 사진 제공 티링크

인스타그램: @tealink_official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1관 3층

Q. 티링크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세요.

A. 티링크는 차류 전문회사로 녹차, 홍차, 청차와 허브티를 연구하고 소비자를 위한 tea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티링크는 '사람과 차를 연결하다'라는 뜻인데요. 차와 허브를 통해 현대인이 만족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식음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Q.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A. 직장 다닐 때, 외국인 친구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의 차(茶)를 가져가고 싶어해 괜찮은 차 제품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차를 알아보기 위해 하동지방을 조사하던 중 '하동차박물관'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시음하며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봄에 차잎을 따는 것보다 고사리를 따다가 파는 게 더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젊은 사람이 많이 없는 차산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후 차를 배우기 시작했고 6개월 뒤 우연히 참가한 "하동티블렌딩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창업 아이템으로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차'는 맛으로 즐기는 음료이지만, 건강적인 면에서 어떤 음료보다 훌륭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가치 있는 제품은 소비 환경이 주어진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차가 커피와 다른 음료에 밀려 대중적이지 않지만 제 노력이 차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Q.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세요.

A. 추석을 하루 앞두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부모님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고객이 명절연휴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어요. 사무실 전화를 핸드폰으로 연결해 두었던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분이 평소에 부모님을 위해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객이 소중한 분에게 드릴 선물로 저희 제품을 선택한 마음이 느껴져 정말 고맙더라고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앞으로 티링크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티링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차와 사람이 연결되어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음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식류 제품을 개발하여 현대적인 차문화를 만들어 가는 식음료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 "'티링크'의 뜻은 사람과 차를 연결하다는 뜻인데요. 차와 허브를 통해 현대인이 만족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식음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Q. 창업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창업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 실패를 하나씩 성공시켜 나아갈 때 창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중간에 넘어지고 지지부진할 때 포기 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성공시켜 나아가길 바랍니다.

9월호 그곳에 가다는 이동옥 님의 추억담을 바탕으로 취재되었습니다.

지리산에 기대고 섬진강을 바라보고

전남 구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의 넉넉한 푸르름을 호흡한다.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섬진강의 맑음을 가슴에 품는다. 땅의 평안한 기운과 그윽한 자연의 운치가 넘치는 구례. 그곳으로 떠난다.

글 한울 / 사진 정우철

1 화엄사 오르는 길에 만나는 동자승
2~3 화엄사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하면서도 단정한 풍경들
4 지리산의 노고단이 감싸안은 듯한 오층석탑, 대웅전, 각황전 등 보물들
5 산과 구름이 함께 보이는 잘 정비된 듯한 화엄사 경내

군 시절 추억이 담긴 그곳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중대장 직책으로 근무했던 전남 구례는 지리산이 감싸 안고 섬진강의 잔잔한 물줄기가 평안을 더해 주는 고장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봄, 가을 이른 아침의 장엄한 운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나 자신이 신선이 된 듯,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에 빠져들곤 했지요. 산 아래 자리한 화엄사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또 지리산하면 가장 먼저 재첩이 떠오르죠! 재첩을 가득 넣은 국수나 수제비는 입맛을 돋웁니다. 사연을 적다 보니 또 가고 싶어지는군요.

- 이동옥 님

알립니다

군 시절 추억이 깃든 여행지나 장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사연 신청을 서두르세요! <다시 웃는 제대군인> 매거진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됩니다.

이메일 응모: vnet5729@gmail.com

지리산 노고단의 보물 같은 곳 화엄사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에 창건된 고찰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우주에 의해 창조된다'는 화엄사상의 근본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화엄사에는 보물이 가득하다. 국보 제67호 각황전과 국보 제35호 사사자삼층석탑, 보물 제299호 대웅전, 각각 보물 제132, 133호인 동서오층석탑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지난 후 만나는 보제루는 장식과 단청이 없는 수수한 건물로 절제미가 느껴진다. 기둥은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채 통으로 바위에 올라가 있다. 보제루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높은 석단 위에 올라 서 있는 전각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앞쪽으로는 조선 인조 때 벽암대사가 중창한 대웅전이, 왼쪽으로는 숙종 때 계파대사가 중수한 각황전이 자리하고 있다. 각황전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절묘하게 조화된 가람배치의 아

름다움과 그 뒤로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지리산의 노고단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단청도, 문살도 채도를 낮추고 있는 대웅전은 고색창연하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한국의 불교조각 중 유일하게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되어 있다. 삼신불은 불교 경전 내용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손으로 베낀 경전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품으로는 화엄사의 불상이 유일하다. 각황전은 겉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는 탁 트인 하나의 공간이다. 화려하면서도 단정한 품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엄사 앞마당의 동서 오층석탑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크다는 석등은 오랜 세월을 품은 듯한 모습이다.

구석구석 넉넉한 정신이 깃든 운조루 고택

조선 후기 양반 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택 운조루는 1776년 당시 삼수 부사를 지낸 류이주가 99칸(현존 73칸)으로 지은 대규모 고택이다. 운조루는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의 이름으로,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란 뜻과 함께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빼어난 집'이란 뜻을 담고 있다.

대문으로 들어서자 한옥 특유의 지붕선과 하늘이 맞닿아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낸다. 'ㄱ'자 모양으로 연결된 한옥은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다. 안채는 사랑채 사이의 중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부엌과 찬칸, 곡간, 대청이 'ㅁ'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행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다른 고택에서 보기 힘든 운조루만의 특징은 사랑채와 안채로 연결된 경사로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안채로 이어지는 부엌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새겨놓은 나무 뒤주가 남아 있다. 집 뒷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자리한 뒤주는 아랫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배고픈 이들이 누구나 먹을 만큼 쌀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지붕보다 낮게 만들어진 굴뚝도 운조루의 또 다른 특징이다. 배고픔이 컸을 춘궁기에 밥 짓는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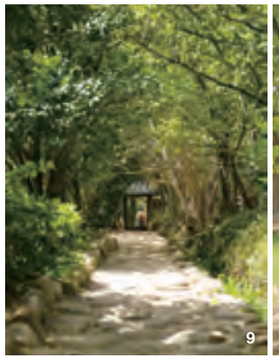
비밀스러운 정원을 품은 쌍산재

쌍산재는 직접 돌아보지 않으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택이다. 규모가 큰 대갓집 정도로 예상하고 들렀다면 거대한 자연을 품은 모습에 둘러볼수록 놀라고 마는데, 이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대문 안에서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의 정원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관리동이 있다. 관리동에서는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는데, 쌍산재 곳곳에 앉아 호젓한 자연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다. 관리동 오른쪽으로는 마당을 두고 안채와 사당, 건너채, 사랑채가 자리한다. 아담한 한옥들이 다소곳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풍경은 소박하고 정겹다. 한옥 구석구석에 놓은 돌확과 소쿠리, 키, 쟁기 등의 전통 도구는 고택의 재미와 운치를 살려준다.

한숨을 고르고 대숲 길을 따라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갈 차례! 대숲 초입의 별채를 지나 돌계단이 이어진다. 한 발 한 발 돌을 디디며 처마가 멋들어진 별채와 아담한 정자인 호서정을 차례로 만난다. 최근에 새로 지었지만 대숲과 어우러져 운치를 풍긴다. 울창한 대숲,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 대숲과 어우러진 야생 차나무… 이 길은 쌍산재 최고의 비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숲이 끝나는 곳에서 만나는 너른 잔디밭은 첫 번째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동백나무 터널을 지나면 푸른 하늘과 초록 잔디밭, 동백나무에 둘러싸인 서당채(쌍산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풍경에 또 한번 놀라고 만다. 한옥과 한옥 사이를 메우는 넓은 마당과 숲,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온갖 화초와 나무가 꽉 찬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쌍산재의 후문인 영벽문을 열면 푸른 저수지가 대미를 장식한다. 저수지를 바라보며 방죽을 따라 산책하는 즐거움도 남다르다. ㉿



섬진강 '뷰 맛집'

섬진강재첩국수

구례보다는 하동과 더 가까운 섬진강재첩국수는 섬진강 강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다 SNS에서 유명해진 뒤 근처로 이전해 주문과 결제가 키오스크로 이뤄지는 가게로 탈바꿈했다. 섬진강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에 요즘 말로 '뷰 맛집'으로 불린다. 1층 실내와 실외, 2층 실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2층은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다. 메뉴는 재첩회, 재첩국수, 재첩비빔국수, 전병이다. 주문한 음식은 큰 쟁반에 담겨 나오는데 손님이 직접 운반을 해야 한다. 재첩회와 비빔국수의 양념장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첩회를 먹을 생각이라면, 국수는 비빔국수보다 재첩국수를 주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6 온돌방과 대청,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는 운조루 큰사랑채
7 운조루 안채 마당에 놓인 장독대 등이 고택의 정취를 더해준다.
8 비밀스러운 정원을 품은 고택 쌍산재의 호서정
9 또 다른 비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쌍산재의 후문인 영벽문
10 초록으로 둘러싸인 경암당 풍경
11 쌍산재 안채는 자연을 감상하며 차 한 잔 마시기에 좋은 장소다.

라떼 이야기

9월호 라떼 이야기는 김진용 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라떼 이야기'에 자신의 군대 생활 추억이 소개되기를 원하는 제대군인이 있다면 vnet5729@gmail.com에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ILITARY Q&A

이런 보직도 있어? 특수보직에 대하여

매일 같이 소총 들고 훈련하고 삽질하는 일반 병사들이 보기에는 땡보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특수보직 근무자들은 평범한 군 생활이 더 부러울 때가 많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고충으로 가득한 군대 특수보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글 편집실

우편만 관리하는 보직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우체국과 군사우편출장소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군사우편관리병 또는 우편병, 우체병이라고 합니다. 군사우편출장소가 있는 대부대에만 존재하며, 각종 택배물을 정리하고, 우편물을 분리하는 등의 우편 업무를 담당합니다. 만약 군사우체국이 부대 외곽이나 밖에 위치한다면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간인의 우편 수납 업무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본인의 정체성이 군인인지, 공익인지, 공무원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발병은 정식 보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부대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두는 비정규 보직인 이발병은 사회에서 취득한 이용 및 미용 자격증 있는 이발병과 일반전투보직을 가진 병사가 2차 보직을 겸하는 경우,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큰 부대에서 이발병이라는 정식 보직을 받고 부대 내 이발소에서 일과 시간에 병사나 간부들의 머리를 깎는 일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 평소엔 다른 병사들과 같이 훈련을 받다가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병사들의 머리를 깎는 일을 합니다.

BOQ병은 땡보직이다?

BOQ병은 장교, 부사관의 독신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거시설 독신자 숙소(BOQ)를 담당하는 병사입니다. 숙소 청소는 물론 시설관리, 민원 수렴, 우편 배달, 상부의 각종 지시사항 전파 등 주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 시설반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보일러를 관리하며, 숙소 주위 조경수와 쓰레기 분리수거도 담당합니다. 때때로 퇴근 후에도 긴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보직이 있다?

개 사료 챙겨주기, 샤워시키기, 똥 치우기, 산책하기, 순찰하기, 게다가 군견의 공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에서 사시사철 훈련을 맡아서 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군견의 훈련과 관리를 담당하는 군견관리병 또는 군견병입니다. 사회에서 동물원 사육사 같은 동물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큰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군견병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군견이 사망했을 때 그 원인이 관리 소홀로 나온다면 책임을 지고 영창에 가게 됩니다.

NEWS DESK

이달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달의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21

#1

국가보훈처 창설 제60주년 온라인으로 기념행사

국가보훈처가 올해로 처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8월 5일 보훈60년사 봉정, 6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모범·우수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기념패 증정, 기념사 순으로 진행한 유튜브 채널 'TV 나라사랑'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창설기념일을 자축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하여 오늘의 국가보훈처에 이르기까지 60년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또 달려와 핵심 정부부처로 발돋움했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성원과 국민의 관심, 그리고 보훈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처 창설 6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처 창설 60주년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인 '보훈업무의 질적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의 60년 한발 더 나아가 '보훈의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훈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코스닥 상장 우수기업 탐방으로 제대군인 취업 기회 제공

광주센터는 8월 12일 제대군인의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탐방을 계획, 공작기계 부품 제조에 관심과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8명과 함께 서암기계공업주식회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서암기계공업주식회사는 40여 년간 각종 기어류, 척&실린더, 커빅커플링 등 공작기계 핵심부품을 전문생산해 온 코스닥 상장 우수기업으로 2013년 광주센터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탐방을 통해 센터는 해당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은 관련 분야에 적합한 우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3

취업맞춤특기병 취업 지원 향상을 위해 병무청과 협업 간담회 개최

강원센터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에 대한 취업 지원 향상을 위해 8월 18일 강원지방병무청과 업무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2021년도 취업맞춤특기병 관리 현황과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실무협조를 통해 맞춤특기병이 전역 후 조기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들의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받은 후 관련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전역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병무청, 고용노동부 등이 범정부 협업으로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취업맞춤특기병이 전역 후에 특기를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센터별로 전담상담사를 배정하고, 1:1 상담을 통한 구직목표 설정, 구직스킬 향상, 채용정보 제공, 사이버 교육 수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4

2021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

서울센터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주최의 'IFS(International Franchise Show)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에 협업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IFS 프랜차이즈 서울은 현 창업시장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박람회로 전시장을 방문하는 은퇴자, 퇴사자, 직장인, 학생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300여 창업 브랜드 본사와 1:1 창업 상담을 주선한다.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전 업종이 참가하지만, 이번 박람회는 최근 흐름에 맞추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무인, 배달, 로봇, 간편식 등의 아이템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입장은 홈페이지(www.ifskorea.co.kr)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입장권(7천 원)을 구매해야 한다. 창업 상담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서울센터 창업지원팀(☎02-3480-6861)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하다.

추석엔 전통시장으로 가자!

민족대명절 추석이 있는 9월. 고향의 냄새만큼 정겨운 우리네 전통시장을 가보는 건 어떨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경성문화사

고창전통시장 01

고창은 지리적 특성상, 서해에서 나는 해산물과 육지에서 나는 농산물로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철마다 나오는 제철과일은 단연 인기. 조선시대 고창 읍내장을 계승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라 구경거리도 많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62-11

제주동문시장 02

동문시장은 제주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제철 수산물부터 각종 농축산물과 특산물, 빛깔 좋은 과일부터 별미 주전부리까지 제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제주 제주시 관덕로14길 20

광양5일시장 03

광양5일시장은 광양에서도 가장 큰 시장으로, 뒷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날마다 장이 열리는 5일장이다.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점포 및 주차장 등을 새단장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3

QUIZ

독자퀴즈

8월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는 김윤권 방호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❶ 강원북부교도소 ❷ 강원서부교도소 ❸ 속초경찰서 ❹ 강릉시청

※ 정답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소개된 내용에서 정답을 찾아 응모해 보세요.
※ 응모방법
<다시 웃는 제대군인>지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 또는 QR코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매월 20일까지. 정답·이름·주소·연락처 기재)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1년 8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길호(경남 진주)
송호석(서울 서초)
이희정(강원 춘천)

※ 당첨자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 드립니다.

※ QR코드를 통해 메일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QR Droid Private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메일 앱으로 다시 시도하십시오.

국가보훈처

9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수도고지전투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동부전선인 강원도 금성군 원덕면 및 임남면에 위치한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일대에서 중국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 및 제35사단과 벌인 총 5차례의 고지쟁탈전이다. 1952년 9월 포로송환문제로 휴전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유엔군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한 내 주요 발전소를 폭격했고, 공산군은 국군의 방어지역만을 골라 국지적인 선제공격을 가했다. 이때 공산군은 장차 공세작전의 발판이 될 전초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는 세 번째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9월 6일 오후 6시 50분, 공격준비사격을 마친 중국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수도고지를 공격했다. 제26연대 5중대는 이들의 접근을 저지하며 맞서던 중 적의 맹포격과 수적 열세로 고지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연대장 명령에 따라 오후 8시 50분에 제2연대 10중대가 다음날 새벽까지 세 번에 걸친 반격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물러나야 했고, 제3대대 역시 실패했다. 이후 두 차례 더 공격에 실패하자 사단장은 사단 예비대인 제1연대 2대대를 제25연대로 증원한 뒤, 9월 9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수도고지 탈환에 나설 것을 또 한 번 명령했다. 연대장 정진 대령은 그동안의 전투상황을 분석한 후 수도고지에 집중된 중국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3대대 일부 병력으로 621고지를 공격하기로 작정했다. 정해진 시간에 공격을 개시한 제1연대 2대대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군단 포병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감행한 끝에 오후 11시 20분경 드디어 목표를 탈환하고, 뒤이은 중국군의 반격을 격퇴하여 고지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국군 수도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고지를 고수함으로써 추저항선 정면의 중국군 접근로에 대한 통제와 관측을 가능하게 했고, 아울러 지형능선의 확보를 통해 사단의 측방위협을 제거하고 보급로 유지에 기여했다.